

유아·초등교육 내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사인식연구

A Study on Teachers' Attitudes Toward Characte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 교수 장 영 은*

부 교수 박 정 윤**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istant Professor : Chang, Young Eun

Associate Professor : Park, Jeong-Yun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 Lee, Seung-Mie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problems in characte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and a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The study interviewed 20 teachers from child 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us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The results showed teachers'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character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d difficulty because they lacked a manual as well as training for character education and because of the inconsistency between character education and the burden of academic performance. The lack of connection among characte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lementary school, strong needs for parent educ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three spheres of the home, school, and community were also implied.

▲주요어(Key Words) :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

I. 서론

우리 사회는 지금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생들의 자살

등 학교를 둘러싼 여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디어에 보도되는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보인다. 그 일례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95%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러한 사회적

* 주 저 자 : 장영은 (E-mail : yechang@cau.ac.kr)

** 교신저자 : 박정윤 (E-mail : pjy4838@cau.ac.kr)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바로 아동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인성교육(人性教育, character education)이란,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더불어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정서의 이해와 표현을 교육하는 정서교육, 인, 의, 예, 지 등 인간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가치교육,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원리에 대한 도덕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남궁달화, 1999).

초등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주로 도덕 교과를 통해 실행되고 있으나, 아동들 간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집단따돌림,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자살 등 적응적 문제 발생은 점점 그 빈도를 더해 가고 있어, 학교 교육 내에서 자아 존중감, 타인에 대한 배려, 도덕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염려가 사회적으로 팽배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비단 극단적인 문제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겪게 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스로 이끌고 안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할 때, 학업적 성취만으로는 이를 수 없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강남구 보육정보센터, 2008).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 친절함, 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고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가 되는 친사회적 능력, 공감 능력, 정서 지능, 자기 정서 이해와 조절 등의 발달은 유아기부터 적절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ee & Lee, 2000; Oh & Lee, 2002).

Elias와 동료들(1997)은 사회적, 학업적 성공과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에 따르면, 미래에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중요한 바탕은 아동기에 형성되며, 그 바탕의 주요한 요인은 사회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기술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학교 중퇴, 그리고 집단따돌림 등 학교의 인성교육이 결여로 야기된 문제로 해석되는 행동양식들은 충동적 의사결정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Zimmerman(1990)은 인성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능력들 중 자기조절 능력은 자율성이 생겨나는 유아기 초기부터 배양되어야 하며, 초등학교를 걸쳐 청소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장시켜야 할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생애 초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도

덕성을 발달시키는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생활 습관형성과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령전기에는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걸쳐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범의 습득, 또래에 대한 배려, 예절, 바람직한 정서표현과 타인의 정서 이해 등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보육 및 유아교육 과정 내에서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적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도 빈번히 발표되고 있다(지성에·김미경, 2003;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2008; Kim, Chang, & Yoo, 2009; Lee, 2009).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입학과 함께 인성교육이 바른생활 교과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나, 성과위주의 학교운영에 가로막혀 효과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곤 한다(허승희, 1998; Wang, 2004).

영유아기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은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과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거시적인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과 모두 적절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본생활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 자기존중, 정서인식과 조절,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식 등 인성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게 되며, 각 요소에 관련된 아동주도의 활동이 연령별로 개발되어 있다(이순형 등, 2009). 제 7차 유치원교과과정에서도 건강 생활, 사회생활, 표현 생활, 언어생활, 및 탐구 생활의 영역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의 규범을 익히고 타인을 존중, 배려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정서를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내용 외에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Berkowitz(2005)는 학교교육 내 인성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효과적인 인성교육 접근의 전략으로서 ① 직접적 교수(direct instruction), ②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③ 교실/행동 관리(classroom/behavior management), ④ 제도 재조직화(institutional reorganization), ⑤ 모델링과 멘토링(modeling & mentoring), ⑥ 지역사회 서비스/서비스 학습(community service/service learning), ⑦ 교사전문교육(educator professional development), ⑧ 가족/지역사회 참여(family/community participation)를 들었으며, 인성의 도덕적 측면(moral character)과 수행적 측면(performance character)을 구분하고, 학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성의 측면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상에서의 문제부터 제도와 정책 등 거시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하여,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인성교육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인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인성교육의 덕목과 요소를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김영옥·송혜린·김현미(2007)은 자아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기초적 인성,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인 사회적 인성, 좀 더 높은 차원의 덕목인 도덕적 인성으로 분류하였다. 유아의 기초적 인성은 개인생활 습관, 공동생활습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사회적 인성은 자아개념(신체적 자아, 정서적 자아,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대인관계(감수성, 의사소통, 절충과 협력), 주도성(설득력, 성취동기)을 포함하였다. 도덕적 인성은 도덕적 동기, 판단력, 행동을 포함하였다. 한편 이돈희(2002)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경로효친영역, 정직, 절제, 근면과 성실, 생명존중, 타인배려, 평등과 인권존중, 공정성, 신의, 용기, 책임·협동, 민주성, 애국·애족, 인류애, 공동체 의식, 환경보호, 성윤리, 정보윤리로 영역을 나누었다. 안범희(2005)는 미국의 인성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인성덕목은 신용, 타인존중, 책임감, 공정과 정의, 배려, 시민의식, 정직, 용기, 성실,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교육부는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홈페이지에서 동정, 정직함과 공정함, 자기수련 및 자제, 바른 판단, 타인에 대한 존중, 자기존중, 용기, 책임감, 그리고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인성교육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궁달화(2003)와 Kim(2007)은 인성교육이 청소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도덕적인 삶이 인간다운 삶의 바탕이 된다는 논리로 도덕교과 과정을 통해 학교 내 인성교육을 주도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Kim(2003)과 Wang(2004)은 실과 및 가정과 교육과정 내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Huh(1998)의 연구에서는 Brooks와 Kahn(1993)이 제시한 인성교육의 효과성 검증의 기준을 토대로 기존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자아확립, 공동체 의식, 효도, 경애 등의 덕목을 인성의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나, 학년별 수준에 따른 구조화, 학부모와의 연계, 아동주도 프로그램, 그리고 사전, 사후 평가 및 객관적인 평가방식 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성교육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크게 인성교육의 요소나 덕목의 추출(이돈희, 2002; 안범희, 2005), 도덕 및 실과 교과과정 분석(남궁달화, 2003; Chung, 2003; Kim, 2003; Wang, 2004; Kim, 2007), 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Kang & Bang, 2003; Kim, Chang, & Yoo, 2009; Lee, 2009)에 대하여 이루어져왔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운영현황, 보다 효과적인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은 유아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기초는 가정에서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시작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이르는 시기에 다져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유아 및 초등교육의 인성교육을 다룬 국내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 보육, 그리고 초등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 유아 및 초등교육 내에서 인성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에 있어 효과성과 한계점,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유아기 및 아동기의 인성교육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 <연구문제 1> 유아 및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유아 및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유아 및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각 심층집단면접은 4~5명의 교사를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5집단을 대상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인 교사들의 연령은 20~3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는데 25세 이하가 3명, 26~30세가 10명, 31~35세가 7명으로 비교적 해당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었다. 경력을 살펴보면 1년 이하가 1명, 2~3년 경력인 교사가 4명, 4~5년 경력교사가 6명, 6~7년 경력인 경우가 4명, 8~10년 경력인 교사가 5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3명과 대학원생 2명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질문내용을 작성하였으며(<부록 1> 참조), 각 면접은 연구자 2명과 대학원생 1명이 참여하여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질문하고 교사들의 응답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대학원생 2명이 이 내용을 전사하고 연구자들이 모두 이 내용을 분석한 후,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eachers In-depth Focus Group Interview

대상자		연령(세)	경력(년차)
1	S 어린이집 1	27	4
2	S 어린이집 2	29	8
3	S 어린이집 3	26	3
4	S 초등 1	24	2
5	S 초등 2	29	5
6	S 초등 3	23	1
7	S 초등 4	25	3
8	L 유치원 1	27	6
9	L 유치원 2	24	2
10	L 유치원 3	27	7
11	L 유치원 4	28	6
12	H 초등 1	31	7
13	H 초등 2	33	8
14	H 초등 3	33	10
15	H 초등 4	32	8
16	H 초등 5	32	8
17	D 초등 1	28	5
18	D 초등 2	31	5
19	D 초등 3	28	5
20	D 초등 4	28	5

IV. 결 과

1. 인성교육개념 및 중요한 요소

교사들은 인성교육에 대하여 추상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일부는 인성교육이 다른 교과교육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성교육이 학교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인성교육 자체가 체계화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학교 별로 차이가 있는 등 비체계적임을 시사하는 응답이 있었다.

“...초등교육 자체가 기본생활습관 플러스 기초 학력 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지요.(중략) 인성교육이 아침시간에서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전반적인 그런 아이들의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해요.”(H초등 4)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활전반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H초등 2)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학력중심 학교가 있고, 조금 밑의 수준의 학교는 기초부진 애들을 기본 학습 능력까지 끌어올리기 바쁘고…….”(H초등 4)

한편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결과 배려심, 절제감, 책임감, 수용감, 관용, 존중감 등이었다. 교사들은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가 1~2명이고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자녀 입장에서만 양육을 하게 되면서 집단 활동에서 남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으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 둘이잖아요. 어머니들이 오냐오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때리고도 미안해하지 않고, 친구랑 싸우고도 배려하는 것이 별로 없고 해서 남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S어린이집 1)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와 소통이 잘 안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배려하거나 따뜻한 아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S어린이집 3)

“아이들이일수록 절제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S어린이집 1)

“요즘은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하면서도 필요한 것인 절제 인 것 같아요”(D초등 1)

“다른 것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고르자면 절제와 관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D초등 2)

“...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상처를 줘요…….”(D초등 1)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능력, 화합하고 협동하고 조화해서 같이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성에서 필요한 것이지요…….”(H초등 4)

“인성교육이요. 나눔과 배려...사람을 배려하고 나눔을 강조하게 됩니다.”(S초등 2)

“자존감이라고 생각돼요.... 배려가 되고 존중이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투사가 된다고 생각해요.”(S초등 1)

한 유치원 교사는 양보와 배려에 대한 강조점을 주장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역시도 배려에 대한 부분이 요즘 학생들의 인성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성교육을 했을 때 드는 생각은 여기도 뭐 이야기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내가 규칙을 지키는 것 이런 게 최소 기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D초등 1)

“...상담해보면 부모님들이 친구에게 양보도 많이 안 하고...(중략) 자기 스스로 친구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L유치원 1)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응을 잘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가족관계나 환경에 있어 이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배려심이 많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솔선수범하는 학생들이 인성교육이 잘 된 아이라고 평가하였다.

“인기 많은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화를 잘 내지 않고 대체로 형제가 있고, 가정에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S어린이집 2)

“공부는 못해도 관계가 좋은 아이가 인성이 바른 아이지요. 배려심이 많고 무엇이든 솔선수범하고, 급식할 때도.... 공부는 잘 하지만 이기적인 아이는.....”(D초등 1)

2. 인성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가정교육의 부족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교사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기본생활 습관에 있어 의존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아이들의 독립심 등의 인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가정에서 전부 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생활습관부터요. 7살인데도 집에서 부모님이 밥을 다 떠서 먹여줘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스스

로 밥 먹는 것도 어렵고, TV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제대로 습관이 생길 수가 없죠..... 씻는 것도 마찬가지로예요.”(S초등 2)

초등 교사들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배부되는 인성교육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비슷하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D초등 2)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논하기 전에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외국에서는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S초등 3)

“학기 초나 중간에 가정통신문이 들어가요..... 유치원 하원 후나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상황 등에 대해서... 그러나 전혀 소용이 없죠”(L유치원 3)

앞에서 부모들이 교사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 교사는 부모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과 우려를 제시하였다.

“... 어머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중략) 안 되면 책임전가를.....”(L유치원 1)

2) 아이들의 불균형적 성장

교사들은 유아들의 성장이 신체적 성장과 인지능력의 학습적 능력은 매우 과거에 비해서 매우 빨라지고 있으나 정서적, 사회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퇴행되는 경향을 보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균형적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기본생활습관은 퇴행하는 것 같아요. 비속어를 쓰는 것이 대표적이죠. 학원을 다니면서 초등학생들과 어울리고 나쁜 말들을 배워서 몰래몰래 쓰곤 해요.”(S어린이집 2)

“... 그러면서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연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선생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지요. 집에서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니까.....”(S어린이집 2)

“요즘은 아이들이 학업에 너무 치중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불균형적인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가 힘든 것이지요”(D초등 2)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동생활의 경험 부재와 경쟁심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성을 갖게 되고, 학습에만 치중하여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경쟁과 적개심만 생기면 서 상처를 받는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서 고학년이 되면 서로 무시하고 성적만 중요하고…….”(S초등 3)

3)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와의 불연속성

유아교육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몇몇 교사들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기본 가치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초등교육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어린이집에서 교육한 인성교육의 요소들이 초등학교에서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성교육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인데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중심에서 놀이를 하는 것이 유아기관인데 초등학교는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하니까 아이들이 적응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S어린이집 3)

“저희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든 걱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런 경로가 없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S어린이집 1)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들을 통해서 들을 뿐이라서…….”(L유치원 3)

“...초등학교에서도 힘든 것 같고,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좀 더 강조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S어린이집 2)

아울러서 초등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습관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들이 미비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에 혼란이 있음을 호소하고 인성교육을 새롭게 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하였다.

“..어머니들이 바쁘니까 7세 아이들에게 학습습관을 길러주지 못하고, 유아교육에서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준비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생활습관, 학습규칙 등을 가르치는 것부터 해야 해서…….”(D초등 3)

4) 가정과 학교(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인성교육 불일치성 교사들이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생활습관이나 인성에 대한 교육이 가정에서는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방향과 상반되는 양육태도를 보이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감을 야기할 수 있고 교사의 인성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집에서는 변기물 내리는 것. 집에서 안 내리는 집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집에서 엄마도 안하는 거 자기도 따라 한 거라고”(S어린이집 2)

“.... 학교에서 하는 것을 가정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친구 때리는 것을 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부모님은 때리고 오라고 하잖아요…….”(D초등 1)

“물건을 아껴 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3자루를 가져왔는데 싹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없어졌어, 나 사줘’하면 어머니들이 사 주세요. 그렇게 반복되니까 자기 물건이 소중한지를 유치원에서 가르쳐도 소용이 없지요.”(S어린이집 2)

“요즘은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들이 버리시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아니깐.... 소중한 마음으로 만든 건데 집에 가져가면 ‘그럼 버려’라고 하니까 아이들도 노력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이 없어요.”(S어린이집 2)

“유치원에서만 인성교육을 배우면 가정에서 그게 연계가 안 되고.... 그러니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얼마 못가죠.”(L유치원 1)

초등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에는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의 인성교육방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함으로써 자녀에게 혼란감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더욱이 교사들은 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 교육내용에 대한 비수용적인 태도로

인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없음을 호소하였다.

“부모님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교육관이 확실해서 저희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저는 아이들에게 갈등상황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맞고만 다니지 말라고 해요.(중략) 어머니들은 잘 수궁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하세요.....”(D초등 2)

“...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부족한 면을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중략) 다른 친구와 당신 아이들을 비교설명하면 받아주시지를 않아서.....”(L유치원 4)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와 교사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비교적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긴밀한데 초등학교의 경우 상황이 달라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이가 다쳤는데 유치원이었으면 교사에게 연락을 했을 듯한데.... 초등학교의 경우 전화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과의 적절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L유치원 4)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어떤 교육도 만족하지 못하시죠... 내가 봤을 때 저런 선생님도 존경할 수 있나... 이런 태도는 절대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S초등 1)

“...선생님 말은 신뢰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책임은 모두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 탓이라고 하면서.....”(S초등 2)

5)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인성교육 만족도 높음

조사 참여자들 중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이 아이 교육에 있어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교육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많은 항목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나눠주기, 양보하기, 배려심 등은 아이들이 잘

못할 수 있는데 ‘힘내’ ‘괜찮아’ 등의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S어린이집 2)

“갈등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아이들의 입장을 얘기해줘요. 서로 돌아보고 나서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 역지사지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등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는 아이들끼리 폭력을 쓸 경우이고 그 외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S어린이집 3)

6) 교과과정에 인성교육의 한계와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초등교사 집단에서 동일하게 제시한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학교 현실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는 점이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은 인성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인성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덕교과 자체가 전체 교과과정에서 등한시되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 교과내용에서 인성교육의 내용이 다루었을 때 국어, 사회, 도덕의 자료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아이들에게 질문 한 번 하는 정도이죠 뭐, 그리고 잔소리나 하고.....”(D초등 2)

“저 역시도 도덕에 교과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정도입니다.....”(D초등 1)

“... 수업량이 많고 평가가 많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못하면 모두 교사의 책임이 된다. 그래서 학습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중략)... 도덕 과목은 아무것도 아닌 교과가 되어 버리기도 해요.....”(S초등 2)

교사들은 현재 초등 교육과정학교의 여건 상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교육이 주요 교과 위주로 치중되어있는 현실적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학교 교육 내에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양립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을 토로하였다.

“...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요즈음에 학력신장이야기를 하는데 인성교육까지 할 여유가 없어요.....”(S초등 3)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은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같이 하라고 하니깐 말이 안 되는 거

죠…….”(S초등 1)

한편, 교사들은 도덕 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어서, 다양한 교과 내에서 인성교육의 접합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도덕교육이 사실 인성교육이고 도덕 교과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도덕교과도 통합 교육적으로 그래서 모든 교육을 할 때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H초등 4)

7) 교사들의 업무과중

교사들이 인식하는 인성교육 실시의 어려움들 중 하나가 과중한 학교 업무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나 상부기관으로부터 교과 진도, 학생 개별지도, 그 외 다양한 업무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인성교육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 문제가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의 개인적 역량으로 이에 대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리가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인성교육이나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았다.

“...수업시간이 많고 과목별로 진도 나가야 할 것도 많고, 도덕도 책을 읽고 진도 나가는..... (중략), ... 저희 반 평균 40명 정도이다. 40명을 모두 공부를 가르쳐야 하고 그 이외에도 처리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인성교육까지 하기는 벅하다…….”(D초등 3)

“너무 일이 많아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그 전에 인성교육을 예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D초등 1)

“인성교육을 충실하게 시간 할애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역량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감소시켜야 해요. 학력지상주의는 정말 아닙니다. 아이한테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S초등 2)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 주셔야지요. 업무량 과중시키고 정책결정자들은 경솔한 의견 하나를 제시만 하고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일선 교사들이 다 담당해야 하고.”(S초등 2)

3. 인성교육의 개선방향

1)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방법과 자료, guideline 마련
교사들은 인성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사고하고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적절한 사례를 발굴하거나 인성교육을 위한 자료까지 마련하여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경력이 낮은 교사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질 높은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안내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실 사례의 제시, 동영상 활용, 유치원의 경우 일화 기록 등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의 근거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상벌을 주는 것보다는 사례를 자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자료집이 있거나 안내서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D초등 2)

“자료집으로 마련된다면 인성교육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D초등 4)

“...5, 6학년만 해도 인성교육이 지루하게 여기는 것 같다...(중략)... 아이들 수준에 맞고 흥미롭게 동영상과 같은 것을 자료집으로 마련된다면 인성교육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D초등 4)

“저희는 일화 기록을 하는데 아이를 관찰하고 그것을 근거로 부모와 아이 상담할 때 활용해요. 좋은 것 같아요”(L유치원 3)

2) 부모 양육태도 변화를 위한 시스템(정기적인 부모교육 등)마련

교사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빈번하게 언급한 것은 부모들의 잘못된 태도와 학교와는 상반되는 양육태도가 인성교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보육기관이나 학교에서 지향하는 인성의 방향과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일관성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나 관련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 합니다

다. 그러니까 갈등상황에서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S어린이집 2)

또, 부모들이 자녀의 인성교육 중요성을 지각하지 못함을 자각하도록 하고 부모들의 관심이 학교의 인성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부모들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하는 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어머님들은 우리에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별로 없으세요.”(L유치원 1)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지요”(D초등 4)

“부모님들이 내 아이 입장만 보지 말고 손해 보는 입장, 공동체성, 사회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네.”(D초등 1)

또, 부모들이 솔선수범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인성을 보여주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을 부모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교육은 일회성이나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사도 있었다.

“어머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걸 보여줘야 아이들이 하는데 집에서 어른들 만날 때 인사해야지 어머님들이 먼저 보여주는 부분이...(중략) 부모님이 바뀌고 부모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이들 인성하고 직결되는 데…….”(L유치원 3)

“아이의 문제의 99%는 부모님한테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교육이 결과 아이의 인성과 직결됨으로 평생교육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H초등 4)

“예방접종 꼭 맞아야 하는 것처럼 인성교육도 부모들이 주기적으로 꼭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S초등 2)

아버지의 역할과 교육 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아버지들이 육아 자체에 매우 소극적이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기회나

시간이 주어지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방법이나 요령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물리적인 여건 -시간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아버지들은 육아는 어머니들이 하는 거라고 의식하시고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직장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S어린이집 3)

“...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노는 것 자체, 사진 찍어주기 등은 잘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활발한 아이들조차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매우 조용해지기까지 하거든요…….”(S어린이집 2)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인 아버지들을 보면 아이들도 다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인성도 매우 바른 것 같아요.”(D초등 2)

“일단 아버지들이 시간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S어린이집 1)

부모교육의 내용도 아이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덕목이나 가치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가 먼저라면 가정에서 내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중요함을 가르쳐야할 것 같아요. 지식중심으로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을 아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내용에…….”(S어린이집 3)

3) 현재의 학교교과과정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다른 교과시간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갖는 한계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 달에 한 번 이라도 인성교육이 있으면 좋겠는데 체험학습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중략).”(D초등 2)

" 수업시간에 협동학습 방법을 통해서 인성교육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H초등 4)

또 지역사회 자원(복지기관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경험한 교사들의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반의 부적응아가 있었는데 아바타 프로그램 다녀와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학기에 한번 정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D초등 4)

4) 전담인력의 양성 및 배치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상담교사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학교마다 한명씩 배치를 해주시던가, 돌아가면서 양호교사들이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처럼요."(S초등 3)

또, 인성교육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초등학생들은 선생님들에 계속 다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마다 다르면 인성교육이 달라지면 안 되죠. 선생님들의 개인적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S초등 1)

IV. 논의 및 결론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유아 및 초등학생의 중요한 인성교육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둘째, 교사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대안을 도출하여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면접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다양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이해와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육관의 부재를 의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의 교육방식이나 접근방법에 대한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도출되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인성교육의 연계성 부족과 가정과 학교간의 기본적인 파트너십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다.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자질에 있어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반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성과위주의 교육시스템 내에서 인성교육이 공존가능하기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였다.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비교적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고 있었지만, 반면 여러 문제점의 근원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체계적으로 유아 및 초등교육 내에서 수행되는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e.g. Berkowitz, 2005)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한 인성교육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부모교육의 강화,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교사들은 유아교육현장과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이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가정 및 사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초등교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교육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무력함을 표현하여 이들 교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내용에 대한 교사(재)교육이다. 인성교육은 인성에 관련된 가치에 대한 교육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기가 선행되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Lee, Chang, & Park(201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에게 인성교육의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만나본 교사들은 인성교육이 가정의 몫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교사연수 등 재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인성교육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인성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예비교사교육의 인성교육적 부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사 면담의 결과에 따르면,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사가 담당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고, 사명감과 책임감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대학교 교직과목에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예비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 실재를 훈련하는 등 인성교육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유아 및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별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운영현황을 고찰한 결과, 학교별로 인성교

육의 내용이 대부분 추상적인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이는 인성교육이 가지고 와야 할 결과에 대한 합의와 고민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타인배려, 감정조절, 질서, 정직 등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자아존중감, 책임감, 다양함에 대한 존중, 민주시민 의식 등으로 인성교육의 내용의 중심을 이동할 수 있다. 교육활동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학년별 난이도 조절을 통해 보다 이해 가능한 인성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학년별, 수준별 인성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다양한 인성교육활동을 기존 교과에 연계하는 방안이다. 인성교육이 별개의 교과로 교육할 사항이 아니며, 아동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전반에 녹아있는 교육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기존의 교과에 인성교육의 내용을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역할 놀이 및 독서활동과 인성교육의 연계는 미국교육부의 인성교육 방법(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에서 제안되었던 방법이며, 실제로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2009)에서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은 독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을 국어교육과 예술교과에 적용하여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동화 및 소설을 읽고 등장인물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내가 등장인물이었다면 취했을 행동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극 놀이 또는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Tillman(2000)의 Living Values Activities for children ages 8-14에 따르면, 외국어 교육에 인성교육을 연계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영어동화를 통해 학습한다면 인성교육을 위한 시간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성교육의 매뉴얼화이다. 교사 대상 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초등교육 내 인성교육의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가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지침의 부재이다. 현직 교사들의 경우 스스로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문제현상들이 인성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e.g. 학급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처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부모와 연계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하여,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가정에 미루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인성교육의 각 주제별로 교사가 일과시간 및 다양한 교과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매뉴얼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전담 교과시간 및 전담교사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각 급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라는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바른 생활 및 도덕교과를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 전담 교과시간의 배치가 시급함을 발견하였다. 즉, 연간 8~10회기 정도의 인성교육 시간을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시간에 배치하고, 각 시간 당 인성교육의 구체적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집단따돌림의 정의, 집단따돌림의 결과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독립적으로 할애하는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방과 후 교사 및 상담교사 제도를 활용하여 인성교육 교과시간을 담당할 인성교육 교사를 학교별로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창의체험학습 제도의 활용, 부모교육의 활성화, 건강가정지원 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활용을 통한 학부모와 학교지원 등을 통하여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의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꾀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교육과정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인성교육 연구와 차별되게 보육, 유아교육, 그리고 초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면접내용을 토대로 유아기,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상 교사들의 경력이 10년 미만이고, 근무 지역이 서울 및 경기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추후 연구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밝혀볼 수 있을 것이며, 인성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의 프로그램 개발도 의미 있을 것을 기대된다.

REFERENCE

- 강남구 보육정보센터(2008). 유아기본생활지도 프로그램.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김영옥·송혜린·김현미(2007). 21세기 변화에 적합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 남궁달화(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 남궁달화(2003).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한국실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1-28.
- 안범희(2005). 미국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 및 특성연구. 인문과학연구, 13, 133-169.
- 이돈희(2002). 도덕성 회복과 교육. 경기 파주 : 교육과학사.

- 이순형 · 이성옥 · 권혜진 · 이소은 · 황혜신 · 이혜승 · 한유진 · 정윤주 · 이영미 · 이옥경 · 성미영 · 권기남 · 김지현 (2009). *보육과정 (3판)*. 서울: 학지사.
- 지성애 · 김미경(2003). *유아사회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한국교육개발원(2011). *학교생활에서의 욕설사용실태 및 순화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황경식(2000). *학부모(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가이드 북*. 서울: 교육부.
- Chung, M. K.(2003). Strategies of character education through home economics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Korean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16(3)*, 141-161.
- Huh, S.(1998).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2(1)*, 67-86.
- Kang, J. E. & Bang, J. H.(2003). Development of practical arts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 for charact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16(2)*, 33-50.
- Kim, M. J.(2007). A Study on Methods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Morals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14*, 181-206.
- Kim, S. K.(2003). *Home Economics Teacher Characteristics and Affective Morality through Home Economics Instruction recognized by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 Kim, Y., Chang, M., & Yoo, H.(2009).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5)*, 297-324.
- Lee, B. S.(2009). Study of integrated teaching method for children's character educa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7*, 249-270.
- Lee, S. Chang, Y. E., & Park, J.(2011). A study on effective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character education through family-school partnership: Based on parents' satisfaction and nee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4)*, 35-47.
- Lee, S. N. & Lee, Y. S. Lee(2000). The effect of prosocial intervention on friendship and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1(2)*, 147-156.
- Oh, S. H. & Lee, S. E.(2002). The effects of prosocial behavior improvement program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moral reasoning.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9(2)*, 213-237.
- Wang, S. S.(2004). The systematiza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contents in the 7th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2)*, 13-26.
- Berkowitz, M.(2005). Character education: Parents as partners. *Educational Leadership, 63(1)*, 64-69.
- Brooks, B.D. & Kahn, M. E.(1993). What makes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work? *Educational Leadership, 51(3)*, 19-21.
-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2009). *Schools, Families, an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Promotion and Yout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 Elias, M. J. Zins, J. E., Weissberg, R. P., Frey, K. S., Greenberg, M. T., et al.(199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uidelines for Educator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Tillman, D.(2000). *Living Values Activities for children ages 8-14*. Deerfield, FL: HCI.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5). *Helping Your Child Become a Responsible Citizen*.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Outreach. Washington, D.C.
- Zimmerman, B. J.(199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San Diego: Academic Press.

□ 접수 일 : 2012년 01월 11일

□ 심사 일 : 2012년 01월 31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3월 12일

<부록> 집단심층면접 질문내용(유치원 및 초등교사용)

1. 인성교육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 인성교육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내용 중 지금 연령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3. 초등 저학년의 인성교육의 필요성? 필요한 정도?
4. 어떤 부분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5.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6. 유치원 때에 비해서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차이점을 느끼는지?
7.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 인성교육에서 가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9. 학교 인성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10. 효과적인 초등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있었으면 하는 제도나 변화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